하나님 배불뚝이 되기 금식

(이사야 58:1~14)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배불뚝이 되기 금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배불뚝이 되기 금식'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먹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의 목표는 먹고 배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십 일 동안 떡과 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득히 잡수셨습니다.
이를 통해 금식이 단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먹지 않았던 것을 먹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죄는 마음에 세상을 담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으로 마음을 배불리기 위하여 입으로도 음식을 열심히 먹고 마시며 기운을 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먹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먼저 청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짜장면 먹다가 짬뽕 먹으면 맛이 깔끔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강릉의 중앙시장에 가면 3,000원 짜리 칼국수가 있습니다. 멸치다시 물에 끓인 칼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칼국수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1,500원짜리 김밥도 팝니다.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짭짤하고 맛이 좋습니다. 김밥을 먹고 칼국수를 먹으면 싱겁게 느껴져서 양념장을 더 넣게 됩니다. 그런데 칼국수만 먹을 때에는 간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을 먹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것을 주섬주섬 먹어가며 하나님도 먹으려고 하니 온전히 하나님의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먹고 있던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 이유는 음식 먹는 이유를 중단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먹고 마셔서 기운이 있어야 세상 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먹고 마심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 것을 중단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세상 것을 중단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먹어서 배부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과 연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 왕국 유다에 대해 신랄한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여호와 신앙을 종교화 해버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복음은 말 그대로 삶이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마음 그릇에 세상을 담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마음에 담았던 집 형제자매 부모자식 전토 등의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번영과 성공을 위해 초월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 즉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금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식은 유익하지만 꼭 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단순히 금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진면목을 금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금식은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금식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금식과 흡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구하였으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원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로 나와 금식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A회사와 B회사가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느 회사와 해야 할까요?'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금식하며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사업의 성공을 통해 배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질책하는 선민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업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사업을 담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해서 마음이 배부르겠다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의 질책을 받을만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선민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다면 번제단의 의미를 생각하며 사업을 생각하는 마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사야 시대에는 이것을 잘못이라 지적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매주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지만 정작 마음에 세상을 담은 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목사님은 만나기 힘듭니다. 삶이 되어야 될 복음과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과 신앙이 종교가 되니 우상숭배가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6절부터 나타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못 끊던 사람이 금식을 통해 끊거나 또한 습관적인 범죄나 죄악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은 친척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모른 척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식의 효과라니 다소 의아합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 '흉악의 결박'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멍에의 줄'도 비슷한 의미로써 억압과 강제노역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또 ‘압제 당하는 자’라고 한 것도 노예에 대한 가학과 압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식은 안 먹는 것이지만 안 먹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먹어서 배불뚝이가 되기 위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으로 배부르기 위해 밥도 먹고 물도 마시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배부르고자 타인을 압제하는 사람이었다면 금식하는 동안 타인을 더욱 압제하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멍에의 줄을 씌워서 권리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더욱 악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먹기 위해 세상 먹기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령 나에게 빚진 자나 부하나 노예를 만날지라도 그들을 부려서 얻어지는 성취를 통해 마음을 채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얻으려는 만족이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굶지는 않는지 고통스럽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불뚝이들은 타인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당장 어려운 친척을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고나면 그 결과로 7절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이 드러내는 금식의 목표는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사십 일 동안 음식과 물을 끊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밀도는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니 음식 생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가서 먹던 건빵까지도 생각이 날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불철주야로 하나님과 관계하시며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사십 일 간 금식을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차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배불뚝이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배불뚝이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타인에게서 취할 유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은 사명자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명자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님들이라면 예배당을 짓자고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당을 짓자고 해도 먼저 하나님으로 배 부르자는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총동원주일을 하자고 해도, 지금 예배에 오시는 분들부터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미명아래에 교인 수 늘리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앉은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한다고 야단을 칠뿐이지 그들을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라는 설교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부조리하고 모순입니다.
한 명이 앉아있든 두 명이 앉아있든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은 목사님 자신이 먼저 배불뚝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든 말든 예배당에 비가 새든 말든 성도들이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배불뚝이가 된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제로입니다. 오직 나의 기쁨과 만족이 세상을 향해 표현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만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군이 되고 가는 곳마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배불뚝이들의 특징입니다.

금식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의 한 측면을 부각시켜 줍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놀라운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정신을 성취한 사건이며, 율법의 모든 정신을 성취한 사건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건이며,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성취하고, 성전의 의미와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켰으며 금식의 의미까지도 완성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물인 십자가 사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써먹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금식의 본래 목표인 하나님 배불뚝이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의 굴레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금식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싶을 때에 유익한 것입니다. 금식의 본래 의미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나는 세상으로 배불뚝이가 되려 했던 나입니다. 세상으로 배 부르려고 했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뚝이가 되면 흑암은 광명으로 바뀝니다.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목마름이 없고 뼈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렇게 금식의 의미를 완성시킵니다.

정리해봅니다.
구약에서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먹던 세상 먹기를 중단하기 위해 육체로 먹던 음식까지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요구하는 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황폐해진 곳마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세움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정신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구약의 금식이 목표로 했던 하나님 먹고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세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에 육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고 나누고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슬픔과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불만과 불안들을 떨쳐내게 하고 하나님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금식의 목표는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의 정신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리석게 세상으로 배 부르려 하는 나를

끊임없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불뚝이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